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무대 예술 중 하나인 노(能: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상연되는 극)는 일본의 고전적인 악극 형식입니다. 그 기원은 9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사루가쿠(猿樂)라고 불린 곡예, 춤극, 희극 등 여러 다른 무대 예술을 하나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노의 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의 무대는 이야기, 노래, 무용, 음악을 일체화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연은 일본의 고전 문학을 바탕으로 사랑, 배신, 동경, 효행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기본적인 구성으로 시테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가면과 공들여 만든 의상을 몸에 걸치는 것을 통해 인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테는 종종 부채를 사용하면서 연기합니다. 조연을 맡는 지우타이(地謡)는 이야기의 흐름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4명의 연주자(囃子: 하야시)가 3종류의 북과 피리를 연주합니다. 노의 공연에서는 일반적으로 막간에 교젠(狂言: 희극)이 상연됩니다.

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노가 느리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노의 절제되면서도 고도로 양식화된 동작은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동작과 몸짓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몇 번이고 연습을 거듭하면 작은 동작을 통해 더욱 깊은 의미를 표현하고 관객의 감정에 호소하게 되어 모든 면에서 훨씬 표현이 풍부해집니다. 숙련된 시테는 관객을 빠져들게 만들어 머리를 약간 다른 쪽으로 트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는 공연 이외에도 찬사를 보낼 만한 점이 많습니다. 가면은 풍부한 예술성이 발휘된 작품으로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여러 세대에 걸쳐 각 유파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보물입니다. 또한, 공들인 전통 문양을 수놓은 호화로운 의상도 아름답습니다.

노 무대에는 장엄한 소나무와 대나무로 장식된 배경 외에는 장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가 야외에서 공연되었던 과거를 반영하여 무대에는 현재도 지붕이 달려 있습니다. 예로부터 신들의 나무로 널리 여겨져 온 소나무라는 상징을 통해 노 무대가 신성한 공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